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⑯ 마음이 법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 참되고 바른 견해를 갖추고, 천하를 마음대로 다니며 도깨비처럼 사람을 어지럽히는 일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조작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다만 평상의 마음 그대로이면 된다. 그대들이 밖으로 나가 바른길이 아닌 엉뚱한 옆길로 들어가면 벌써 틀려먹은 것이다. 부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부처는 이름뿐이다. 그대들이 밖에서 부처를 찾겠다며 찾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가? 삼세와 시방의 부처님과 조사들이 세상에 나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지금 선을 참구(參究)하는 여러분들도 단지 법을 구하기 위해서다. 법을 얻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요, 얻지 못하면 예전처럼 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천상의 다섯 곳을 윤회할 뿐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바로 마음의 법이다. 마음의 법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시방을 관통하고, 눈앞에 버젓이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문득 이름과 글귀를 분별하면서 문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고 불법을 헤아리고 있으니 하늘과 땅만큼 어긋나버린다."

불교의 범어 어원은 붇다 다르마(Buddha Darma)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법이라고 해야 맞다. 붇다는 '불(佛)' 이고 다르마는 '법(法)' 이다. 법(法)이 교(敎)로 바뀌어져 불교라 하게 되었다. 법을 알아야 부처가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법을 구하는 것이 수행이다.

어느 날 임제가 대중에게 법문을 하면서 부처를 구한답시고 사방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마음 안에서 법을 구하라는 일침을 가한다. 법이란 바로 마음이니 마음을 어디 가서 찾느냐는 말이다. 온 시방을 관통하면서 눈앞에 버젓이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을 찾아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이 법' 이라는 것은 일찍이 마명(馬鳴 · Asvaghosa)이 〈대승기신론〉에서도 선언해 놓은 말이다. 마음이 법이고 부처인데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법이 있는 양 객관을 의식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면 엉뚱한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이다. 바다나 호수의 물이 본래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수면 그대로 있는 것인데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듯이 분별이란 본래의 마음에는 없었다, 선(禪)의 목적인 견성(見性)이란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승찬대사 〈신심명〉 첫 구절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揀擇)을 꺼릴 뿐이다.(至道無難 唯嫌揀擇)"고 하였다. 간택이 곧 분별심이다.

이 대목의 또 하나 중요한 말은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 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묘한 말이다. 일이 없다는 것은 조작하는 마음이 없는 순수한 본래 마음, 번뇌에 의해 욕심이 생기거나, 근심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는 평상심을 두고 한 말이다. 헐떡거리는 마음 곧 치구심이 가라앉으면 일 없는 사람이 된다. 영가의 〈증도가(證道歌)〉에도 '절학무위한도인(絶學無爲閑道人)은 부제망산불구진(不除妄想不求眞)' 이라는 말이 나온다. "배움을 멈추고 할 일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것도 없고 참된 것을 구할 것도 없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경지가 아니다. 그러나 완성된 경지가 무엇을 시작해서 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본래 아무것도 하지 않던 무위(無爲)의 상태로 돌아간 복귀(復歸)의 자리다. 불교의 수행이란 진심(眞心)에 복귀하는 일이다.

달마의 사행론(四行論)에서 말하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 '일 없는 것' 이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생멸심(生滅心)이 없어지는 것이다. 임제도 이 무소구행을 강조했다. 도를 닦는다 하고 닦는 사람은 온갖 번뇌만 다투어 일어날 뿐이라 했다. 잠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일이 있지만 이미 깨어난 사람에게는 잠 깰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부가 성취된 분상에서는 일이 없지만 수행 도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정진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선의 세계를 달리 표현해 보자면 일 있는 데서 출발하여 일 없는 데로 가는 것이고 말 있는 데서 출발하여 말 없는 데로 가는 것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붓다 되려면 '반야바라밀' 배워야



세상 속 경전읽기

⑯ 오안(五眼)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곧 '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는 뜻이다. 이는 후한(後漢)시대의 역사가 반고(班固)가 지은 〈전한서(前漢書)〉의 '조충국전(趙充國傳)'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전한(前漢)의 제9대 황제 선제(宣帝 · BC 74~BC 49)가 강족(羌族)의 반란을 진압할 방책을 묻자, 조충국 노장군(老將軍)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고 하며, 전쟁터 인근으로 가 현지를 살펴본 다음 방책을 제시하여, 이후 강족의 반란이 차차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사람은 5근(根) 중에 안근(眼根)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가장 많이 믿는다. 그러면 우리 육안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무지개의 7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빨강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보지 못한다. 또 아주 작은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작은 것을 보려면 현미경, 전자현미경 등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어 망원경의 도움을 받는다. 필자는 흰 종이를 볼 때 오른쪽 눈에는 희게 보이지만 왼쪽 눈에는 약간 미색을 띈 흰색으로 보인다.

40대 중반에 미국 오레곤건강과학대학교(OHSU)에 2년간 교환교수로 갔을 때 이미 노안(老眼)이 왔다. 책을 읽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노안 보정 안경을 쓰지는 않았고, 일상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감염된 치근관(잇속의 관, 일반인이 신경이라고 부르는 곳) 내의 미생물들을 배양하여, 현미경사진을 찍을 때가 문제였다. 내 눈에 균이 잘 보이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현미경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인화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붓다는 모든 법의 사(事 · 현상)와 이(理 · 이치)를 관조하는 5종의 눈인 오안(五眼)을 갖추고 있다. 곧 육안(肉眼) · 천(天)안 · 혜(慧)안 · 법(法)안 · 불(佛)안을 갖추고 있다. 범부는 가려져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육안만 갖추었고, 욕계 · 색계의 천인(天人) 또는 사선정(四禪定)에 든 사람은 천안을 더 갖추고, 원근(遠近), 과거와 미래, 내외(內外) 및 세밀한 인과(因果)를 볼 수 있다. 성문(聲聞) · 연각(緣覺)은 혜안(慧眼)을 더 갖추고 있는데, 현상의 이치는 보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보살은 법안(法眼)을 더 갖추고 있는데, 모든 현상의 참모습과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두루 안다. 붓다는 불안(佛眼)을 더해 5안을 갖추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5안을 갖춘 이가 붓다이다. 오안을 갖추려면 곧 붓다가 되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또한 사리불이여! 보살마하살이 5안(五眼)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오안이란, 육안 · 천안 · 혜안 · 법안 · 불안이다."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20b15~17〉

반야는 '모든 붓다[諸佛]의 어머니[성불의 원인]' 라 불리며, 이러한 내용은 〈반야경〉을 비롯한 대승경전이나 논서에서 널리 강조되고 있다.

"붓다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반야바라밀이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니라."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326a07〉

"반야바라밀은 과거 · 미래 · 현재 시방(十方) 모든 붓다의 어머니이니라."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423c19~20〉

"반야바라밀을 마땅히 설하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이것(반야바라밀)이 붓다의 어머니이고 보살의 어머니이니라."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T0245_.08.0831a02〉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닦음의 길 2

붓다의 수행 '위빠사나'

한국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선(禪)이 그 중심에 놓여있다. 물론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지만, 무게 중심은 아무래도 선으로 향해있다.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역시 선종의 다른 이름이다. 해마다 두 번에 걸쳐 행하고 있는 안거(安居) 기간에는 전국의 선원에서 눈 푸른 납자들이 선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화두를 드는 간화선(看話禪)이 오랫동안 대세를 이루어왔다.

그래서인지 싯다르타가 화두를 타파하고 깨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간화선은 송나라 때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가 개발한 수행법으로 이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인물은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다. 그 후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붓다 당시에는 간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싯다르타가 이런 수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붓다를 위대한 깨침으로 이끈 수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8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으로 알려진 위빠사나(Vipassana)다.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집을 나온 싯다르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정과 고행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유행했던 두 수행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실천이었다. 그는 수행하는 동안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처절하게 해왔던 고행을 과감하게 버렸다. 그리고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결코 일어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보리수 아래 앉았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위빠사나 수행법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붓다는 자신을 깨침으로 인도한 수행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다. 그는 〈염처경(念處經)〉에서 위빠사나를 "중생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지며, 고뇌와 슬픔을 없애고 바른 법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도 이 법에 의해 최상의 열반을 얻었고, 현재와 미래의 부처도 이 법으로 열반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붓다에게 위빠사나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수행법이 남방으로부터 소개된 것은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소승선(小乘禪)이란 이름으로 그 가치가 절하되고 있었다.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열등한 수행법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신앙의 대상인 붓다의 수행법을 불자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간화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위빠사나를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칫 붓다보다 대혜종고를 우선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다. 이는 불교 역사에 대한 무지와 간화선 제일주의가 낳은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붓다를 바로 알기 위해서도 그를 깨침으로 이끈 위빠사나는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 수행법의 요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觀) 데 있다. 그래서 관법(觀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라는 실상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고통 속에 빠트리고 있는 불안과 공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붓다는 강조한다. 왜 그럴까? 바로 걱정과 두려움, 공포 등은 본래 영원하지 않으며(無常), 그 실체 또한 본래 없기(無我) 때문이다. 대승에서는 이를 공(空)이란 용어로 재해석하였다. 〈반야심경〉에서 이러한 공의 지혜를 깨치면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는 분명 위빠사나를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붓다가 직접 걷고 중생들을 위해 닦아놓은 위대한 길을 우리는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소홀히 취급하고 말았다.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붓다의 수행법을 보아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그 원리와 실존적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